

뉴스 & 뉴스

대법원 송병욱씨 무죄판결

98년 4월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상고 기소된 前 불교방송 송병욱 상무가 구랍 2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송병욱씨는 이미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김주일 기자

호국도술사 찬불가 발표

강원 양구 백두산부대 호국도술사(주지법사 정연태)는 구랍 27일 대웅전에서 제1회 어린이 찬불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공명조 이야기' '사자좌' '우리절 연못' 등 10여곡이 선보였다. 호국도술사는 지난해 6월 어린이 법회를 창립, 매일 사경 및 사불, 찬불가, 율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다. 김주일 기자

광명선원 삼천배 기도법회

서울 광명선원(원장 초격)이 10일~12일 개원 6주년을 맞아 큰스님 초청법회 및 삼천배 정진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동국대학교 원장 김윤환, 조계종 교육위원장 안도스님, 동산반야회 법주 무진장스님 등이 법문한다. 이은자 기자

저소득가정에 '자비의 쌀'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대표 진관 석담 진옥)는 구랍 23과 29일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 저소득 실직가정 50가구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29일 서울 도봉구 창1동~5동을 돌며 25가구에 쌀 40kg 한 가마씩 전달했다. 또 23일에는 강북구청을 방문, 쌀 40kg 25가마를 전했다. 도필선 기자

능인정사 이웃성금 전달

서울 능인정사(주지 법경스님)는 구랍 28일 서울 성수2가 1동사무소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사재섭씨, 모자가정 세대주 이현씨, 생활보호대상자 최선동·이이빈씨, 자제2급장애인 정정모씨 등 다섯가구에 10만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심우회 군장병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3일 강원도 2사단과 21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하고 군장병들을 위문했다.

위문법회에서 심우회 김명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건강한 군생활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우회는 떡과 음료수 등을 마련하여 위문행사를 열고 난로와 보온물통 등 위문품을 군부대에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제1회 실상문학상 시상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채낙현)는 구랍 29일 새마당에식당에서 제1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첫 수상자는 김용태 신라대학교 총장이 선정됐다. 천미희 기자

“불교발전은 인류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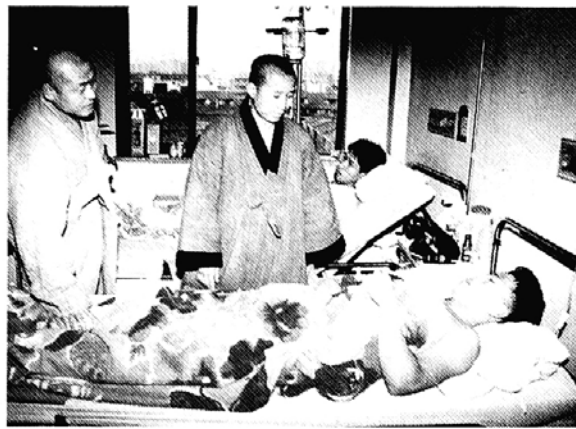
기자회견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

태고종 전 종도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인 제16세 종정의 법좌에 오른 덕암스님은 구랍 28일 주석처인 서울 서대문구 법원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발전을 위해 종단의 역할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 특히 종교인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종건다툼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교계의 현실 속에서 한국불교의 양대산맥인 태고종 종정으로 다시 추대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남은 여생을 한국 불교가 올곧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했다.



스님은 “수행과 포교, 도제양성은 물론 선암사 성역화 불사에 힘써 명실상부한 태고총림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승과 교화승이 하나된 대승교화승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역량을 모으겠습니다”라며 종정취임 첫 사자후를 일갈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스님은 “수행과 포교, 도제양성은 물론 선암사 성역화 불사에 힘써 명실상부한 태고총림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승과 교화승이 하나된 대승교화승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역량을 모으겠습니다”라며 종정취임 첫 사자후를 일갈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추락경찰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사진 가운데)은 구랍 24일 청사 퇴거집행(23일) 때 고가 사다리에서 추락 부상을 당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 위문했다. 도법스님은 서울 중구 필동 중앙대 부속 병원에 입원 중인 진병주 순경(현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입원)과 경찰병원에 입원중인 임낙규, 심재경, 염성철, 김원영, 황산덕, 진종익 순경을 차례로 방문 “종단 내부의 일로 이렇게 큰 부상을 입게한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고영배 기자>

승가원 범담완공

7일 천일기도 입제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최근 황성 종합복지타운의 범담을 완공하고 7일부터 종합복지타운 불사의 입성취임을 발원하는 천일기도 입제에 들어간다. 대지 6백6㎡에 건평 49평 규모의 범담에는 50여명의 신도들이 동시에 기도할 수 있으며, 일법스님이 기도를 주관한다. 문의 (02)928-0750

경주 운불련 창립

호출택시 운영

개인 및 법인택시 운전자들로 구성된 경주운전자불자연합회(회장 안중대)가 구랍 27일 불교사회교육원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호출택시(0561-741-8282~4)로 운영되고 있는 경주운불련은 이날 창립법회를 계기로 경주를 찾은 불자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고 교통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윤호 기자 (yhlho@buddhapia.com)

구속스님 불자 석방운동

불교인권위 대책위 구성

불교인권위원회, 동국대 석림회를 비롯한 교계 24개 승·재가단체가 조계종 사태로 구속된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24개 단체는 구랍 28일 '12·23 구속자 석방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지연·효종)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탄원서 및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구속자 석방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복지시설 가족후원자 급증

‘아침을 여는 집’ 후원자중 30%이상 불자가족

세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복지시설의 따뜻한 온정이 교계 복지단체 곳곳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거리로 나온 실직자들도 모두 우리의 가족 아니겠어요”라고 말하는 김진옥씨(서울 삼성동)는 경제난으로 남편의 사업도 타격을 받아 살던 집도 빚으로 날려버렸지만 실직자 무료급식소 ‘아침을 여는 집’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은희, 선희, 윤희 세 딸과 매월 자작한 큰 힘을 담아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중구 의주로 2가 서소문공원 한쪽에 문을 연 실직자 무료급식소 ‘아침을 여는 집’에는 전체 후원자 1천여명 가운데 3백여명이 넘는 후원자가 김씨 가족처럼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모아 후원에 나선 이들이다.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교계 단체와 복지시설의 실직자 구호프로그램에는 이처럼 가족후원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친지와 이웃 등 또다른 가족에까지 퍼져나가 새로운 신행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마산 중리복지관 한가정결연및 기사업을 통해 남편 편찬제씨, 아들 현진, 현식군과 함께 실직 장애인부부가정과 결연을 맺어 왕래하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 안도연씨(마산시 회원동)는 “가족이 함께 후원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원력만 세운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안씨는 “가족후원활동은 가정이 바로 불법실천의 도량임을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리복지관에는 현재 12가족이 실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과 결연을 맺어 후원 활동을 전개 중이다. “부모들의 실직으로 짐을 짊어주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시작한 일에 딸과 남편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이숙희씨(서울 압구정동)는, 지난 10월부터 육수 복지관에서 대학원생인 딸과 함께 후원금 지원은 물론, 월요일~금요일 도시락준비봉사와 남편의 도움을 얻어 도시락 차량운반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무료급식소와 결식아동도시락 지원, 실직자 쉼터 등을 운영중인 육수복지관에도 전체 후원자 5백여명 가운데 10%가 넘는 60여명이 가족후원자다.

이같은 불자가족의 후원 동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황으로 나날이 늘어난 가난 실직자와 실직가정을 지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란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아침을 여는 집의 임효정 대의 협력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보다 많은 불자가족들이 발심해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실천적 자비행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은자 기자 (ejeel@buddhapia.com)

“표창사일대 사명대사 성지로”

밀양시, 통도사 연계 불교관광벨트화 추진

국가에 종달사가 있을 때마다 땅을 흘리는 것으로 유명한 경남 밀양시 무안면 표창비개 일대가 사명대사 성역지로 개발된다.

또 95년 건립에 들어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명대사 생가 복원도 현재 3천여평에서 1만4천여평으로 4배가량 확대 개발할 방침이다. 사명대사 성역지와 생가 등을 비롯한 밀양지역 불교관련 시설을 묶어 양산 통도사와 연계한 불교관광벨트화 사업도 추진된다.

밀양시는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의 불교관광벨트화 사업을 확정하고, 국비·도비·시비 등 70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6월 사업에 들어가 2002년 완공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무안면 무안리 사명대사 표창비개에 있는 흥재사 인근 부지 4천8백50평을 매입, 조경 시설과 함께 성역지 둘레를 옛날 식기 도량으로 단장해 성역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 무안 파출소 청사도 부근 무인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고 파출소자리는 조경시설부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결과 있을 수 없는 일이 인터넷에서 일어났다. 봉은사, 봉원사, 불광사, 개운사 등 서울시 주요 사찰들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교회로 둔갑한 채 서울지역 지도정보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야후코리아(사장 염진석)가 지난해 12월4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웹 서비스 ‘지도서비스’(http://maps.yahoo.co.kr)에서는 봉은사, 불광사 등 서울 소재 주요 사찰 표기를 ‘군’ 아닌 교회로 표시하는 ‘+’로 대체해 불교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지도서비스’는 한국통신멀티미디어연구소 GIS팀(팀장 김성룡)이 5년간 축적해 온 지리정보를 토대로 서울 지역의 전자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야후코리아에서

웹사이트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야후코리아는 “GIS팀이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 개발했을 뿐”이라며 “정보의 정확성은 GIS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통신멀티미디어연구소 안병익연구원(GIS팀)은 “지도란 공간의 모든 형

상물의 위치를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라며 “기호 수를 줄여야만 전자지도의 실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를 선택해 종교기관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문화의 상징성은 뒷받쳐도 좋다는 것인가. 과연

이같은 생각을 0.01mm 오차도 놓치지 않아야 할 한국통신 GIS팀의 경우 5년 동안 국내 지리연구에만 몰두해 온 팀인데, 전자지도에서 사찰을 ‘+’로 밖에 표기할 수 없었을까.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해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기술이다. 그만큼 오픈(open)된 정보의 파장 효과는 컸다. 그것이 사실 이든 허위이든지 대단

하다. 인터넷에는 정보를 올릴 때 정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대표적인 정보회사 한국통신, 야후코리아는 기술자의 편린만을 생각한 채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gobaou@buddhapia.com)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1부 기자>

‘군’을 ‘+’으로

상물의 위치를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라며 “기호 수를 줄여야만 전자지도의 실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를 선택해 종교기관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문화의 상징성은 뒷받쳐도 좋다는 것인가. 과연

이같은 생각을 0.01mm 오차도 놓치지 않아야 할 한국통신 GIS팀의 경우 5년 동안 국내 지리연구에만 몰두해 온 팀인데, 전자지도에서 사찰을 ‘+’로 밖에 표기할 수 없었을까.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해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기술이다. 그만큼 오픈(open)된 정보의 파장 효과는 컸다. 그것이 사실 이든 허위이든지 대단

하다. 인터넷에는 정보를 올릴 때 정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대표적인 정보회사 한국통신, 야후코리아는 기술자의 편린만을 생각한 채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gobaou@buddhapia.com)

### 한국불교교육대학 신입생 편입생모집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 자신과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본 대학은 초 중 단적인 7년제 종교교육대학으로 20여년간 수백여명 포교사 법사와 승려를 양성한 실력과 전통으로 다음과 같이 학생을 모집 합니다.

- 모집 과정 ●
- 과 정 수업연한 졸업 후 특징
- 대 학 2 개년 포교사 필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추천
- 대 학 원 2 개년 법사 필수, 출가 희망자는 대학과 관련한 종단 승려로 득도
- 삼장법사 2 개년 삼장교법사 필수, 국내외 포교원 사명등 개설시 주지, 원장으로 임명

· 본 대학 교양대학과정은 6개월코스로 수시입학 접수함.

- 입학자격과 절차 ●

해당과정에 실력 있는 불자는 성별 나이 구분없이 누구나 입학 할 수 있음. 편입생은 타 불교대학에서 해당 년한을 수학한 자.

- 1) 본대학 소정 입학원서 및 심사카드(사진 4매 첨부) 각 1통.
- 2) 주민등록 초본 1통
- 3) 편입생은 타 불교대학 수학 증명서 1통

입학절차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가까운 본 대학에 직접 접수가능

- 원서접수와 교육제도 ●

- 원서접수는 1999년 2월 10일까지, 서류 심사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함.
- 1학기(6개월)당 교재비 12만원 학비 부담, 특강, 스승님 등 교재 교육.
- 지역 학생을 위해 서울 대구 부산 등 3개 본교에서 특강 교육을 함.
- 부산분교 석림정사에서 매월 2회 4월 일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정기적으로 특강이 있음으로 입학전이라도 수시 특강 받을 수 있음.

**한국불교교육대학**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66-146 전화 02) 821-0541,2 FAX 02)821-0543  
**부산분교, 釋林精舍**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1동 705번지 전화 051) 581-4111,582-4110

■ 석림정사 오는길 ▶ 부곡시장 하차 → 부곡1동 사무소앞 → 부곡여중앞 → 보덕사뒤

###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핀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현(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음식품의 성분이 신권현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작용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낳는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코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유익한 작용을 하며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대아가 임부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현(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궁냉감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힘의 흐름, 몸의 흐름, 악의적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대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감성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2거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